



즉시 배포용: 2017 년 3 월 3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유대인 커뮤니티센터 위협에 관련한 체포안에 대한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성명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반-유대주의 위협과 비열한 행위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용서할 수 없으며 뉴욕의 포용과 다양성에 대한 핵심 가치와 완전히 모순됩니다. 오늘의 체포 사건은 우리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공포를 조성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뉴욕주 경찰청은 계속하여 연방 조사국 및 지방 법 집행기관과 긴밀히 연합하여 우리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요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책임과 노력을 동원하여 이런 부끄러운 행위에 법에서 정한 전부의 책임을 묻게 하겠습니다.

뉴욕항구에 우뚝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과 함께 뉴욕주는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모두의 화합과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며 우리의 이런 가치를 해치는 그 어떤 행위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편견이나 차별을 당한 뉴욕시민은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DHR)의 무료 상담 전화 (888) 392-3644 번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월~금, 오전 9 시~오후 5 시. 또는 81336 번으로 “HATE”라는 문자를 보내셔도 됩니다. 범죄 신고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911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